

2024년 준총회 업데이트



준총회 참석자들이 9월 30일까지 방갈로르에 도착했습니다. 10월 1일에는 우리 창립기념일이자 2024년 준총회 시작이라는 이중의 중대한 행사를 경축했습니다. 개회 미사는 카르나타카 예수회 관구장인 디오니소스 신부가 집전했으며 메리 앤 수녀의 의미있는 개회사가 목적과 일치감을 심어주면서 준총회의 완벽한 분위기를 정해주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는 두 가지 탁월한 자원을 갖게 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바로 크리스찬 브러더스회의 이전 총장인 필립 핀토 수사로, 지도자인 우리가 낡은 것을 벗어버리고 새 관점을 감싸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얼굴을 보여주라”고 영감을 주었습니다. 세드릭 프라카쉬 신부, SJ는 인도의 복잡한 사회 정치 종교적 조망에 관한 값진 통찰력을 나누고 앞으로의 기회와 어려움에 대한 보다 넓은 관점을 제시하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예언자적 여성이 되며 구조적, 고질적, 제도적인 사회 문제를 다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정한 문화의 날에 인도 문화의 아름다움에 몰입했던 일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체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리나 살바 같은 인도 전통 의상을 착용하고 굉장한 흥분과 풍성한 전통에 대한 이해를 뿜냈습니다.

마이소르의 공동체들을 방문하고 우리 수녀들의 따뜻한 환대를 체험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마이소르 궁과 브린다반 정원 방문도 풍요로웠습니다. 뛰어난 건축물과 복잡한 세부를 지닌 마이소르 궁을 보며 마이소르의 왕족의 유산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브린다반 정원은 우거진 녹지와 대칭적 디자인, 흐드러진 꽃들로 참신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배움, 여유, 인도의 풍요로운 유산에 대한 감탄의 순간을 제공하는 우리 여행의 중요한 일부였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나눔과 토론의 시간에 성령의 감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